

현대불교

우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익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문)

고려를 크게 세운다는 명상
빅만평생통장
●매달 1000원씩 저축하면 10년 후 1000만원이 됩니다.
●3년 이상 저축하면 저축액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형/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위원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구로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4월 3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125호

"나를 나쁜놈이라고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자만심으로 살아왔다.
아직도 그 생각이 다 가신 것은 아니다. 당시 패자를 억울하게 당했다는 자기합리화가 몸에 쫓았다. 그런 나에게 참회의 기회가 올지 없었다. 그저 그러저 말아야지,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후회와 깨달음 같은 것이 가끔 마음을 스쳐간다. 나는 10여년간 생각지도 않았던 출판계의 단재장에 선출이 되었다. 일단 선출이 되었으니 나를 선출해 준 조합원들을 위해 함께 일을 해보려고 발 벗고 나섰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최고 출자자인 M씨가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다. 조합을 위해 공급소에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인증캠페인

가서 약속해 온 안전들을 이사들을 총동원하여 부결시키거나 공공연하게 지방색을 들추어내어 안신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면 자기의견에 종조하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 정심대접 등을 하고는 오후 2시에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무조건 안건마다 부결을 시키는 것이다. 나는 심한 삼척 고통으로 5개월만에 10kg이나 빠졌고 회의를 진행할 때나 그들을 보면 다리가 떨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김익식

참회는 뱀을 녹이는 용광로

서 정신과병원을 찾았다. 의사의 말이 이대로 가다가는 불행에 당한다는 것이다. 나는 사의를 표했다. 내 육신도 중요하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합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도 단체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의는 받아들여졌다. 건강도 차츰 회복이 되었다. 그러다 얼마 후 M씨가 세상을 떠났다. 부음을 듣지 않아 민소를 찾았다. 음어린진 매를 듣고 싶었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이고 나의 마음에 안위를 찾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 나에게 그렇게 가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과 앙금은 가시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 원한도 잊혀진다고 하니 시간을 벌자는 범속민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나는 가끔 <법구경>에 나오는 '화에서 나오는 녹은 화에서 생길 것이지만 차차 쇠를 먹어 버린다. 이와 같이 마음이 불이 못하면 그 불이 못하면 마음이 그 사람 자신을 먹어버린다'는 법구를 떠올리곤 한다. 이제라도 겸손과 참회는 온갖 악을 녹여버리는 용광로라는 생각을 되입으며 살아야 할 것 같다. (범우사 대표)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직장 직능단체 지역연합 19면

성보박물관 건립 '허점'

성보보존위 회의서 밝혀 "설계 비합리적...유물 보존장치 등한시"

폐사지 조사도 논의

현재 건립추진중인 8개 사찰 성보전시관 건립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성보보존위원회 1차회의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성보전시관이 설계에서 건립, 유물전시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준비없이 진행돼 시급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방하스님(종도사 박물관장)은 "해인사를 제외한 전시관의 설계가 비합리적이며, 성보 보존·관리에 대한 사찰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재춘씨(문화대위원)는 "유물사 박물관의 경우 장소가 협소해 10

년 후에는 재건축해야 할 실정"이라며 "유물수에 맞는 설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남철교수(고려대 건축공학과)는 "전시관이 경내에 위치할 경우 콘크리트 건물은 경관을 해칠 우려가 높다"며 "사전 검토를 통해 부지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우준씨(서지학회)는 "기립사 성보전시관은 종속으로 지어져 공간이 넓새가 날 정도"라며 "문서나 고서류는 특수보존기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관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은 "각 사찰의 중진스님 모임과 정부의 연차적인 예산보조를 통해 시정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방

하스님은 "최일적인 전시관을 탈피, 사찰과 유물의 특성에 맞는 성보전시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보전시관은 지난해 수덕사와 대흥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기공식을 거쳤고, 지난 11일 일장사가 기

공식을, 용주사와 해인사는 5월 중 기공식을 갖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폐사지 실태조사, 일각사지 10층석탑(국보2호) 보호각 설치, 봉정사 대웅전 후불벽화 관리권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윤기석 기자>



진각종 총무원장에 성초정사



진각종 제25대 총무원장에 김국중(前 교육원장·시진)이 임명됐다. 진각종은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건강상 이유로 사퇴를 표명한 박대 총무원장에 성초정사를 선출하는 한편, 교육원장에 임명정사(前 총무부장), 진각대학장에 석봉정사(前 총교부장)를 새로이 임명했다. 신임 성초 총무원장은 89년 중국대 교육대학원을 수료하고 중앙교육원 교육부장을 거쳐 지난해 진각대학장 겸 중앙교육원장으로 취임해 왔다.

조계종 홈페이지 개설

방송 정보서비스 개시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주)은 24일 4층 회의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시사회를 갖고 한국 불교안내와 부처님오신날 관련 정보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사이트에는 한국불교역사, 한국의 사찰, 스님의 하루, 한국불교의 예술, 경전과 가르침을 비롯 불한동기운동, 연등의 의미, 관음의식, 연등축제, 불국행사 주요 일정 등의 정보서비스가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제공된다. 한



조계종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천왕상 첫 보물지정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이 사천왕상으로는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사찰 입구의 천왕문에 봉안되는 사천왕은 손에는 칼·침을 들고 발로는 마귀를 짓밟고 있는 호법신이다. 남방승장천(사천)은 만물이 태어날 수 있는 덕을 베푼다는 상징으로 비파를 들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복제인간 실험 규제

복지부 '유전자 지침' 공포

인간복제 등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실험이 규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 지침'을 제정 공포하고 7월2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실험금지 등 지금까지 각 시험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아무런 통제없이 실시해오던 유전자 재조합이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인간복제가 금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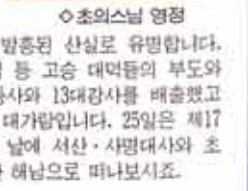
5월 '초의 스님의 달' 행사다채 13면

열린마당-불교와 생명복제 2면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신록의 계절 5월의 문화인물은 한국문화원을 중흥시킨 초의스님입니다. 초의스님은 연담스님의 선지(禪旨)를 이은 대선사일뿐 아니라 조선 후기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한 대표적 문인입니다. 초의스님은 대흥사 말사인 일지암에서 40여년간 머물며 '선다림(禪談一談)' 상상을 꽃피웠습니다. 스님은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옹 등 당대 학자들과 긴밀하게 교류했고 따라서 일지암은 불교와 유학이 자연스럽게 사상·문화적으로 융합된 산실로 유명합니다. 대흥사는 서산 사명 처영 스님 등 고승 대덕들의 부도와 비가 무려 60기나 되고 13대종사와 13대강사를 배출했고 조선전기 불교의 중흥을 이룬 대가입니다. 25일은 제17회 '차(茶)의 날'입니다. 차의 날에 서산·사명대사와 초의선사를 추모하며 차향 가득한 해남으로 떠나보시죠.



초의스님 영정

釋茶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
5월 테마여행-대흥사·일지암
■ 참가 안내
○출발: 5월 24일(토) 저녁 10시·조계사 앞
○인내: 여연스님(일지암 주지) ○회비: 4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운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성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우암우역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꺼지지 않는 등' 밝힙시다

2541개 법보시절 공양...1구좌 1천원
부처님은 왜 이땅에 오셨을까요. 예트를 정도로 만들기 위해 사바세계에 나부신 부처님의 진상 500대원(願)에 그 답이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기2541년 부처님오신날 특집을 통해 '500대원'의 뜻을 되새기며 군부대 고도소 등에 입공양하는 '작은 등 밝히기'를 전개합니다. 1구좌당 1천원으로 올해 불기년도에 맞춰 2541명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면서 인도의 가난한 여인처럼 꺼지지 않는 등공양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1구좌 1천원 (한 사람이 여러 구좌를 하셔도 됩니다.)
▲마감: 1997년 5월8일
▲접수: 현대불교신문 (02)722-4162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
*등창자 명단은 부처님오신날 특집 신문(127호)에 게재됩니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개인소장용으로 제작·보급되는 반가사유상!
우리문화재 사랑의 시작입니다.



■ 작가: 이진형(불교조각원 원장)
- 30여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지성문화재 조각가님 제80호 불교조각원 이진형 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축소제작한 작품으로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81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총무원장상)
- 8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별상)
- 89~95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원 4회
- 제1회 불교조각 개인전 개최 (1995년)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추천작가
현재 전통문화재 기능인 협회 이사

■ 주문시 오프너우 박스로 완전포장하여 판매 및 발송해 드립니다.
■ 본 제품은 크기·형태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규격(폭×높이)	형태	골동품형(左), 코딩형(右)
11cm×26.5cm		230,000원
16cm×40.5cm		350,000원

※ 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 기획·보급: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32-1522, 737-8881 팩스: (02)737-0697 ●

